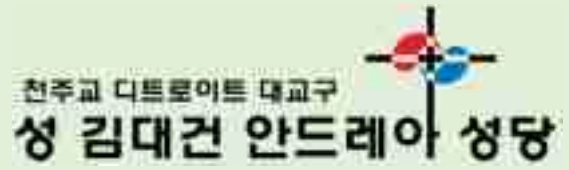


울림과 잠김



제 32 호 2022 년 8 월

소공동체지 편집부

반모임 순서

- I. 성호경, 성가, 예수님 초대 기도
- II. 묵상
 - †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 † 복음 읽기
 - † 말씀에 머물기
 - † 말씀의 울림
 - † 말씀에 잠김
- III. 생명말씀 및 실천사항 정하기
- IV. 건의사항 및 공지사항
- V. 소공동체 기도문
- VI. 마침 성가

묵상 길라잡이

-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 마음 열기
 - 복음 말씀을 천천히 두 번 읽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집중하여 듣습니다.
- 말씀에 머물기
 -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구절을 적은 뒤 “이것이 오늘 나의 어느 부분에 다가왔는지”에 대해 묵상합니다.
- 묵상과 말씀의 울림 나누기
 - 묵상한 부분을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 봅니다. <말씀의 울림>을 참고로 하셔도 됩니다.
- 말씀에 잠김
 - 본당 교우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누고픈 이야기로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주세요.

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빛이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하느님께서 세상에 아드님을 보내셨으니,
그분은 우리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몸이 되신 말씀이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령을 제 위에 보내시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옵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어,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의 참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소공동체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13 그때에 22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23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24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5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 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26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27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28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30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의 울림

- 24 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Strive to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many, I tell you, will attempt to enter but will not be strong enough.”)

살면서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니 그곳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깨달은 경험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 26 절: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We ate and drank in your company and you taught in our streets.”)

온전한 주님을 따르려는 노력없이 단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도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에 잠김

30 절: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For behold, some are last who will be first, and some are first who will be last.”)

어릴 적부터 저는 너무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무슨 발표라도 해야 할 순간이 오면 눈에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하였고 내 목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쿵쿵쿵쿵 거리는 심장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한 성격 탓에 지루한 학창 시절을 보냈을 법도 한데 다행히 몇몇 재미난 친구들 덕분에 간접 경험하듯 특별한 기억이 많습니다. 어느 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등교해서 아침 자율 학습을 시작으로 방과 후 보충수업, 야간 자율 학습을 마치고 나면 담임 선생님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소리가 그리 이상하지 않을 시절이었으니 집과 학교만 오가는 싱겁고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상에서 별미 와도 같은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웃음이 절로 지어집니다. 특별히 자율학습 시간에 4 층에서 책가방을 앞뜰 화단에 던져 놓고 진학실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쳐 냅다 도망치던 친구가 떠올려 집니다. 옷 입는 옷 테가 아주 예뻐서 학교 교복 모델도 했었던 그 친구는 공부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지만, 표정이 밝고 우리 반에서 꽤나 유머러스 한 성격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거의 매일 아침 진학실에 불려가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몽둥이 체벌을 당하고도 저녁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땡땡이를 쳤지만 저는 그의 용기가 참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연히 그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물 같은 세 아이의 엄마로 목회자의 아내로, 아름다운 율동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는 성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아주 짧게 나누었을 뿐이었는데, 그 친구의 신앙의 그릇은 참으로 크고 훌륭해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꼴찌와 첫째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의 것과는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거저 주어진 것에 별 어려움 없이 늘 교회 안에서 지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불평을 달아 살아가고 있는 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주님 저는요?” 하고 애걸복걸하지 않을까 라는 반성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라며 나 자신에게만 너그럽고, 무디어지고 교만한 마음이 일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자주자주 비우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하겠습니다.

8 월 28 일 연중 제 22 주일 ◆ 루카 14, 1,7-14

넷째 주

14

1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가시어 음식을 잡수실 때 일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7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윗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8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9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10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11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12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초대한 이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네가 보답을 받게 된다. 13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14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말씀의 울림

- 7 절: “윗자리”

(“the places of honor at the table.”)

스스로를 대접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윗자리를 선택하신 적이 있나요?

- 13 절: “네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Rather, when you hold a banquet, invite the poor,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들을 신앙생활에 동반자로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잠김

14 절: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Blessed indeed will you be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repay you. For you will be repaid at the resurrection of the righteous.”)

‘세상이 또는 인심이 각박해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순수하게 이웃과 베풀고 나눔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베풀’은 남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이고 대가를 바라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순수하게 베풀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대가를 바라면서 베풀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받은 것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답’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것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보답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베풀의 순수성과 주님을

따르는 길에 소외된 자들 즉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결코 관과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여기는 영역에 알게 모르게 그어 놓는 선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과의 친교와 안일함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열려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의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같은 환경, 생활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 편하기는 합니다. 이해도나 공감 도도 더 큼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낮아지지 못하게 하는 우월 의식과 서로의 편안함이 커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안일함에 안주하는 사고방식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 즉 가난한 자들 장애인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해 가고 싶고, 보기 싫고 듣기 싫어도 세상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꾸준히 실천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기에 실천 해야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미국에 와서 다 열심히 일하면 먹기 살 만하고 우리 공동체에는 그리 가난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만이 넘쳐나는 공동체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난을,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상처를 편안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의 눈엔 더 많은 ‘이웃’들이 보일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의 베품과 순수한 봉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나라에 큰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나눔메모

정 진 그라시아

평생을 교육자로 사신 아버지는 나름의 교육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저는 아버지와 ‘게임’을 두고 의견 대립을 일으켰습니다. 손자가 게임을 시작한 나이가 너무 이르고, 하루 게임 허용 시간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주요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녀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저를 위해, 저는 아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보니 물려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감정이 상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은퇴를 하시고 울적해 하시는 교육자로서의 아버지 자존심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며 상하게 해드린 것이지요.

순간 아차 했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결론도 얻지 못할 이야기로 부딪히며 상처만 주고받은 채 밖으로 나온 저는 갈 곳 없는 낯선 도시를 서성이다가 언제나 편안함을 주는 그곳, 근처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성전에 앉아 좀 전의 상황을 돌아보았습니다. 긴 한숨과 함께 힘없이 돌아서시던 아버지의 작아진 어깨와 서운한 표정으로 얼룩진 얼굴이 자꾸만 스쳐 갔습니다. 뒤이어 후회와 눈물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는 몇 년만 에 만난 아버지께 “네, 아버지. 잘 안되지만 그렇게도 해볼게요.”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을까? 왜 울적해진 아버지 마음 한구석을 덮어주지 못하고, 주름지고 흰머리 가득한 존재 자체를 안아주지 못했을까? 그냥 듣고 ‘네!’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의견이 꼭 옳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보듬어 주었으면 그만이었을 것을…’. 내면에서 나의 자상하고 의견을 잘 들어 주시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몸도 마음도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도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나이듦’에 대한 현실로 다가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딸은 마흔을 훌쩍 넘어가고 있고 아버지도 칠순을 넘기고 계시는데…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아버지께 언제나 마흔의 이해심 많고 자상한 아버지의 모습을 기대했고, 아버지는 저에게 말 잘 듣던 십 대의 딸의 모습을 기대했었나 봅니다.

그날의 우리가 부딪혀 상처 낸 자리로 또 다른 이해가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울적하지만, 변화된 행동으로 보속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노을이 깔릴 때쯤 만두를 사 들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생각해보니, 아버지 말씀도 옳아요. 우리 같이 만두 먹어요.”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탁 한 귀퉁이로 오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맛있겠죠?” 하며 만두와 간장을 덜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버지의 훈계를 따듯한 만두와 함께 꿀꺽꿀꺽 몇 분 동안 삼켰습니다. 듣기 싫던 훈계가 만두보다 더 따듯하게 모락모락 김을 내며 잘도 넘어가 저를 어루만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가족은 미국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의 결심과 보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사뭇 다른 정치 의견, 건강 염려에 대한 긴 이야기를 수화기 너머로 늘어놓으시곤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정치 의견에 “그래요?”, “아 휴, 왜 그럴까요?”라고 장단도 넣어 드리고 아버지의 운동 권고 후에는 산책을 나가 주변 풍경과 가족이 담긴 사진을 찍어 전송해 드리기도 합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이해가 있어야 너와 내가 만나고 웃을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주님, 우리의 깨어진 틈 사이로 빛이 되어 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깨진 그릇을 더 이상 못쓰게 된 그릇이라 하지 않으시고, 깨어진 그대로 써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대단하고 완벽하진 못해도 소박한 보속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나약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동네방네 이야기

- NV3: 이호일 리노 형제님과 장주영 세라피나 자매님의 가정 축복식을 반원분들이 함께 축하하며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 RC1: 김경호 세례자 요한, 김은정 요안나, 김시원 레오 가정의 전입을 환영하며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은총안에 기쁘고 즐거운 VBS 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실천사항

1. 매일매일 주어지는 상황에 성모님의 겸손함과 순종을 생각하며 기쁜 하루를 살기
2. 하루 3 분간 묵상하며 세 가지 감사 노트 쓰기

가정을 위한 기도문

-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주최)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 가정생활의 자랑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주최) 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문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